

청소년기 대인관계와 성인기의 사회적 신뢰도 간의 관계 연구

민숙원¹⁾ · 이세웅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대인관계(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로 연결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 기반이 되는 사회적 신뢰도와 연결되는지 역시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1차부터 12차년도 of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코호트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코호트 고정효과모형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기에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도 좋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학생일수록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관계도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성인기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경우,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개인의 특성, 가정 배경 및 교육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청소년기 시절의 교사와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기 사회적 신뢰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대인관계, 사회적 신뢰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I. 서론

많은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Larson, Whitton, Hauser, & Allen, 2007). Sullivan(1953)의 대인관계이론(Interpersonal Theory)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관계 형성 욕구가 있으며,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형성해나간다(Sullivan, 1953; 강동훈, 2015에서 재인용). 어린 시절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은 성장하면서 우울, 낮은 자존감, 심리적 부적응, 대인기피 등 개인의 삶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하영희, 김경연, 2003). 따라서 인간관계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청소년기 시기에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 등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김한솔 외, 2019) 청소년기에는 가치관 형성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정소라, 정석진, 2017). 특히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배경이나 성격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는 또래관계 만큼이나 대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 미주리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인관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시 된다(송진영, 2016; 하영희, 2004).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영향은 사회적 부적응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 발전을 위해 경제적 성과와 개인의 인적 자원에 집중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안정된 사회 풍토와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원 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들의 사회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사람들끼리의 유대관계가 긴밀하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및 연대의식이 높으며,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김동현, 전희정, 2018; 문상석, 2017).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노력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있어서 사회 제도나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었으나,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서는 덜 주목한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향후의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기 대인관계와 대학시절의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 기반이 되는 사회적 신뢰도와 연결되는지 역시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청소년기 교사, 부모, 또래와의 관계에서부터 대학시절의 대인관계는 물론 성인기의 일자리 및 생활 전반,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 I의 1차부터 12차년도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신뢰도

사회적 신뢰도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주 언급된다.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후쿠야마(1996)는 신뢰를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그리고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후쿠야마, 1996; 엄모섭, 2007:11에서 재인용). 그리고 박종민과 김왕식(2006)은 사회 신뢰를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료 시민들에 대해 갖는 집합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박종민, 김왕식, 2006: 152). 즉 자신이 아는 대상에 대한 신뢰는 물론 잘 모르는 타인에게까지 확장된 범위의 신뢰감을 뜻한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개인의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여러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신뢰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제도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관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박병진, 2007). 특히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와 사회 제도와의 관련성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어, Levi(199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는 정치나 정부 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맥락에서 살펴본 박종민과 김왕식(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신뢰 형성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가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국가 제도가 사회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사회관계적 요인과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Putnam(2000)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적 연대나 사회 참여율이 사회적 신뢰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연관된 요인에 대해서 알아본 김영식 외(2018)의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 교육 관련 경험, 경제 상황 등과 사회적 신뢰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 여부, 개인 및 부모의 교육 수준, 자산 수준 등이 개인이 사회적 신뢰 수준을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 형성 과정에 집중한 김우철(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신뢰 간의 상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와 연결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본 기존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에 영향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개인 특성 중에서 특히 청소년 시기의 대인관계 양상이 성인기 단계에서의 사회적 신뢰 수준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이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청소년기에는 개인의 생활 반경이 확장되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 사회 등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많은 이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자아를 확립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송진영, 2016).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대인관계를 주로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의 경우 개인의 가치관 형성이나 정서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그 관계성을 주목해 왔으며,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주된 시간을 보내는 만큼 대인관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배경이나 성격의 친구들과 교제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갈등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청소년기 또래관계에 있어서 부적응을 경험한 경우 일탈행동을 겪거나 낮은 자기존중감으로 인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삶에 많은 부정적인 경험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용석, 외, 2019; 조춘범, 2017).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만큼이나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교사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성인이며 교사를 통해 학업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들과의 성공적인 관계 형성 경험이 향후 다른 대인관계를 맺는 기반이 될 수 있다(김진구, 신희영, 2018).

유사하게, 부모와 관계 역시 개인의 성격 형성과 사회성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덜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송진영, 2016; 하영희, 2004). 또한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심적으로 안정되며, 긍정적인 삶의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존 연구는 주장한다. 하영희(2004)에 따르면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 청소년기에 우울이나 문제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자녀의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하영희, 2004).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 정도가 청소년기 대인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여 연구 문제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와 연관성이 있는가?

둘째,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성인기의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기 대인관계와 성인기의 사회적 신뢰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I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I: KEEP I)의 1차년도~12차까지의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KEEP의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포함)와 중학교 3학년 코호트를 합친 6,000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약 54%이며, 여성이 46%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생의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학부 졸업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공 계열은 공학, 자연, 의약 계열이 전체의 약 27%로 가장 많았다. 취업 여부에 응답한 사람 중 약 79%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과 기혼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성

구분		전체 연구대상		
		빈도	%	누적%
코호트	일반계 고3	2,000	33.33	33.33
	중학교 3	2,000	33.33	66.67
	전문계 고3	2,000	33.33	100.0
성별	남자	3,218	53.63	53.63
	여자	2,782	46.37	100.0
학생의 최종학력	고졸 이하	412	5.84	5.84
	학사 졸업	1,663	23.56	29.39
	석사 이상	163	2.31	31.70
	결측치	4,826	68.30	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1,182	19.70	19.70
	교육계열	183	3.05	22.75
	공학, 자연, 의약계열	1,630	27.17	49.92
	예체능 계열	449	7.48	57.40
	결측치	2,556	42.60	100.0
취업 여부	취업	1,763	24.97	6.73
	미취업	475	6.73	31.70
	결측치	4,822	68.30	100.0
혼인 여부	기혼	1,085	15.37	15.37
	미혼	1,153	16.33	31.70
	결측치	4,822	68.30	100.0
합 계		6,000	100.0	100.0

2. 변수 설명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 수준과 성인기의 사회적 신뢰도가 사용되었다. 대학 시절 대인관계 변수는 5차년도 데이터에서 대인관계를 묻는 5점 척도 문항 3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항을 생성하였다. 사회적 신뢰도 변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2차년도의 학생 데이터에서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는 청소년기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청소년기 또래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변수이다. 청소년기 또래관계는 1차년도 학생 및 교사 데이터에서 학생의



교우 관계를 묻는 문항 2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항을 생성하였다.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는 1차년도 학생 데이터에서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5점 척도 문항 7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항을 생성하였다. 청소년기 교사와의 관계는 1차년도 학생 데이터에서 응답자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응답한 4가지 문항을 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생성하였다. 1차년도 학생 데이터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4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항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설명 변수는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는 변수와 대학 관련 변수, 일자리나 가구 관련 변수로 나누어서 설정하였다. 우선, 성별 변수의 경우 여성의 경우 1, 남성의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부모의 월소득의 경우는 1차년도 가구 조사에서 수집된 가구의 월소득 정보를 로그로 환산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연령을 통제하기 위하여 코호트 정보를 연구 모형에 반영하였다(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1, 중학교 코호트=0). 부모의 교육수준 변수는 1차년도 가구데이터의 부모 교육 연한을 합산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계열 변수는 문과의 경우 1, 이과의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출신 대학 유형은 준거집단을 4년제 일반대학으로 설정하고 전문대학 변수와 대학원 변수를 더미변수로 각각 코딩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전공 변수는 최종 학력 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계열, 공학, 자연,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변수를 더미로 코딩하였으며, 이 때 인문사회계열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의 소재지의 경우 최종 졸업한 대학이 수도권 지역인 경우 1,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는 0으로 설정하였다. 본인의 월소득 변수의 경우 12차년도 학생 데이터의 월소득 응답값을 로그로 변환하여 변수로 생성하였다. 취업 여부 변수의 경우 12차년도 학생 데이터의 응답값을 바탕으로 취업한 경우 1, 미취업 상태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직장 규모는 12차년도 학생 데이터에서 직장의 재직자 규모에 대해서 응답한 값을 바탕으로 4간 척도로 코딩하였다. 혼인 여부의 경우 12차년도 개인의 응답값을 바탕으로 더미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자녀 유무 역시 12차년도 데이터의 응답값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대한 변수명과 변수처리 정보는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명		변수처리
종속 변수	대학 시절 대인관계	5차년도 데이터에서 대인관계를 묻는 문항 3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항을 생성함. 1) 나는 동료(선배/후배)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한다. 2) 나는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선배/후배)가 많다. 3) 나는 팀원들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신뢰도	12차년도 데이터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측정한 변수(‘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를 4점 척도로 측정된 값을 사용함.

변수명		변수처리
설명 변수	청소년기 대인관계	
	청소년기 교사와의 관계	1차년도 학생 데이터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4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항을 생성함. 1)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2)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3)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4)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청소년기 또래 관계	1차년도 데이터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2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항을 생성함. 1) 학생이 응답한 '친구 관계가 좋다'에 대한 응답값; 2) 답임이 평가한 '친구 관계가 좋다'에 대한 응답값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	1차년도 학생 데이터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7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항을 생성함. 1)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해 준다; 2) 나의 성적에 관심이 많다; 3)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 4) 나와 대화를 자주 한다; 5) 나의 친구관계를 잘 안다; 6) 나는 그 분과 갈등이 있다; 7) 나는 그 분을 존경한다
	통제 변수	
	성별	여성=1, 남성=0
	부모의 월소득	1차년도 가구데이터의 부모 월소득을 로그로 환산
	코호트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1, 중학교 3학년 코호트=0
	부모의 교육수준	1차년도 가구데이터의 부모 교육 연한을 합산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함.
	고등학교 계열	문과=1, 이과=0
	출신 대학유형	준거집단: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1, 비(非) 전문대학=0
	대학원	대학원=1, 비(非) 대학원=0
	전공	준거집단: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교육계열=1, 비(非) 교육계열=0
	공학, 자연, 의약계열	공학, 자연, 의약계열=1, 비(非) 공학, 자연, 의약계열=0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1, 비(非) 예체능계열=0
	대학소재지	수도권 지역=1, 비(非) 수도권 지역=0
	본인의 월소득	12차년도 학생데이터의 월소득 응답값을 로그로 변환하여 변수 생성
	취업 여부	12차년도 학생 데이터의 응답값 사용 예=1, 아니오=0
	직장 규모	12차년도 학생 데이터의 직장 재직자 규모에 대한 응답값 사용 1=1~99명, 2=100~499명, 3=500~999명 4=1000명 이상
	혼인 여부	12차년도 학생 데이터의 응답값 사용 기혼=1, 미혼=0
	자녀 유무	자녀 있음=1. 자녀 없음=0

3. 분석 방법 및 분석 모형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대학 시절 대인관계 및 성인기 사회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코호트 고정효과모형(Cohort Fixed Effects Model)을 활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학년이 다른 두 개의 코호트가 있는 KEEP과 같은 패널 데이터 사용 시 이질적인 집단의 특성을 통제하고 연구모형에 미칠 수 있는 편의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우선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대학 시절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코호트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이 단계의 모형식은 아래의 수식(1)과 같다.

$$Y_i = \beta_0 + \chi_i \beta_1 + M_i \beta_2 + C_i \beta_3 + U_i + \varepsilon_i \quad (1)$$

여기서 Y_i 는 학생 i 의 대학 시절 대인관계 값을 나타낸다. χ_i 는 i 의 개인 및 가정 배경 변수들을 나타내는 벡터로서, 성별, 부모의 교육연한, 부모의 로그 월소득, 그리고 고등학교 계열(준거집단: 문과)을 나타낸다. M_i 는 학생 i 의 대학 관련 변수들을 알려주는 벡터로 학생의 대학 전공(준거집단: 인문사회계열), 대학 소재지, 대학 유형(준거집단: 4년제 대학)을 의미한다. C_i 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 벡터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각각의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대학 시절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적으로 변수들을 넣고 모형 분석을 하였다. 코호트 분석 시에는 코호트 더비 변수를 포함하였고(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1, 중학교 3학년 코호트=0), 이는 공식에서 U_i 로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ε_i 는 모형의 오차항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사회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식(1)에 추가적으로 직장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였으며 이를 P_i 로 표현하였다. P_i 는 직장 관련 벡터로 취업 여부, 직장 규모 등을 나타낸다. 또한 개인 및 가정 배경 변수로 학생의 로그 월소득, 최종 학력(준거집단: 4년제 대학 졸업),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위와 마찬가지로 코호트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Y_i = \beta_0 + \chi_i \beta_1 + M_i \beta_2 + C_i \beta_3 + P_i \beta_4 + U_i + \varepsilon_i \quad (2)$$

본 연구의 분석에는 STATA 16.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으며, 결측값은 다중 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활용하였다. KEEP과 같이 종단연구의 경우 결측치 발생은 불가피한데 이를 단순히 제거해버리게 되면 표본 수의 감소는 물론 표본의 편의를 유발할 수 있어 통계적 추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과학에서는 다중대체법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20개의 가상의 완전한 자료를 생성하여 이를 통해 통계적 추론을 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대학 시절 대인관계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코호트 고정효과모형이 사용되었다. 종속 변수로는 대학 시절 대인관계이며, 청소년기 대인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변수가 사용되었다.

1.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대학 시절 대인관계 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

<표 3>은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대학 시절 대인관계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우선 첫 번째 모형에서는 개인 특성 및 가정 배경, 교육적 배경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대학 시절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도 좋은 경향을 보였다($\beta=.13, p<.001$). 또한 두 번째 연구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학생일수록 대학 시절의 대인 관계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18, p<.001$). 유사하게,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관계도 대학 시절의 대인 관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18, p<.001$).

그 밖에도 성별에 따른 대학 시절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 시절에 더욱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구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시절 대인관계가 유의미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기의 계열이나 출신 대학 유형 및 소재지에 따른 대학 시절 대인관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공 계열에 따른 대학 시절 대인관계 수준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대학시절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coef	SE	coef	SE	coef	SE
청소년기 대인관계						
교사와의 관계	0.13***	(0.02)				
또래와의 관계			0.18***	(0.02)		
부모와의 관계					0.18***	(0.02)
성별(여성)	-0.16***	(0.03)	-0.13***	(0.03)	-0.15***	(0.04)
부모의 월소득	0.07**	(0.02)	0.06*	(0.02)	0.07*	(0.03)
부모의 교육연한	0.02**	(0.01)	0.02**	(0.01)	0.02*	(0.01)
고등학교 계열 (문과)	-0.02	(0.05)	-0.01	(0.05)	-0.01	(0.05)
대학유형(전문대학)	-0.06	(0.04)	-0.07	(0.04)	-0.04	(0.04)
대학 소재지(수도권)	0.03	(0.04)	0.03	(0.04)	0.01	(0.04)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coef	SE	coef	SE	coef	SE
전공 계열 (준거집단: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0.08	(0.08)	0.09	(0.08)	0.11	(0.08)
공학, 자연, 의약계열	-0.01	(0.05)	-0.01	(0.05)	-0.03	(0.05)
예체능계열	-0.01	(0.06)	-0.03	(0.06)	-0.01	(0.06)
Cons.	-0.45***	(0.14)	-0.37**	(0.14)	-0.37**	(0.16)
코호트 고정	✓		✓		✓	
N	3,613		3,587		3,329	
Adjust R2	0.04		0.05		0.05	

* $p < .05$, ** $p < .01$, *** $p < .001$

2.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성인기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성인기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위하여 코호트 고정효과모형이 사용되었으며, 이 때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는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다. 아래의 <표 4>에 따르면,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개인의 특성, 가정 배경 및 교육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청소년기 시절의 교사와의 관계나 학부모의 관계는 성인기 사회적 신뢰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 p < .05$; $\beta = .10, p < .001$). 반면 청소년기 또래와의 관계는 대학생 대인관계를 통제하였을 때 성인기 사회적 신뢰 수준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성인기 사회적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4년제 일반대학 출신이 전문대학 출신보다 높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보였고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도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전공 계열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는 교육 계열 출신자들이 인문사회계열 출신자에 비해서 높은 사회적 신뢰도를 나타냈다. 그 외에 일자리 특성이나 가구 배경 등은 사회적 신뢰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성인기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Ⅳ		모형Ⅴ		모형Ⅵ	
	coef	SE	coef	SE	coef	SE
청소년기 대인관계						
교사와의 관계	0.04*	(0.01)				
또래와의 관계			0.03	(0.02)		
학부모와의 관계					0.10***	(0.02)
대학생 대인관계	0.12***	(0.02)	0.11***	(0.02)	0.11***	(0.02)
성별(여성)	-0.03	(0.04)	-0.03	(0.04)	-0.04	(0.04)
부모의 월소득	0.01	(0.03)	0.02	(0.03)	0.01	(0.03)
부모의 교육연한	-0.01	(0.01)	-0.01	(0.01)	-0.01	(0.01)
전문대학	-0.16***	(0.04)	-0.17***	(0.04)	-0.15**	(0.04)
대학원	0.00	(0.05)	0.00	(0.05)	0.00	(0.05)
대학소재지(수도권)	-0.05	(0.04)	-0.04	(0.04)	-0.05	(0.04)
전공계열 (준거집단: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0.20*	(0.08)	0.22**	(0.08)	0.22**	(0.08)
공학, 자연, 의약계열	0.00	(0.05)	0.00	(0.05)	-0.02	(0.05)
예체능계열	0.06	(0.06)	0.05	(0.06)	0.03	(0.06)
고등학교 계열(문과)	0.01	(0.06)	0.01	(0.06)	0.02	(0.06)
본인의 월소득	0.03**	(0.01)	0.02*	(0.01)	0.04**	(0.01)
취업 여부	0.01	(0.05)	0.01	(0.05)	0.01	(0.05)
직장 규모	0.01	(0.02)	0.00	(0.02)	0.01	(0.02)
결혼 여부	0.05	(0.04)	0.06	(0.04)	0.04	(0.04)
자녀 유무	-0.01	(0.05)	-0.01	(0.05)	0.00	(0.05)
Cons.	1.83***	(0.19)	1.85***	(0.19)	1.83***	(0.21)
코호트 고정		✓		✓		✓
N		1,720		1,707		1,589
Adjust R2		0.05		0.05		0.05

*p<.05, **p<.01, ***p<.001

V. 요약 및 결론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사람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이끌어 내는 반면, 부정적인 경험은 우울감이나 대인기피 등을 일으켜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학자들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김한솔 외, 2019; 송진영, 2016). 본 연구는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향후의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기 대인관계와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 기반이 되는 사회적 신뢰도와 연결되는지 역시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기에 교사, 또래,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도 좋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경향성은 개인 및 가족적 배경, 교육적 배경 등을 통제하였을 때도 유지되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에 정립된 대인관계 특성이나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인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인관계의 대상을 교사, 또래, 부모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일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통해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인관계에서 성공한 경험이 한 개인의 향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어린 시절부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비교적 제한적인 사람과의 대인관계 경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많이 존재한다(염혜선, 이은주, 2018). 따라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대인관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부모 및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기 시절의 교사와의 관계나 학부모의 관계는 성인기 사회적 신뢰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시절의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개인의 특성, 가정 배경 및 교육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도 유지되었다. 이 결과는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어떠한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가는지가 향후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이야기한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행복도, 삶의 질 등과 연계되어 점차 개인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사회적 신뢰는 단시간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모여서 생성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긍정적 대인관계가 장시간이 지난 성인기 시점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개인의 신뢰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역할이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가 분화되고 점차 개인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에는 응답자의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이 여럿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각도로 나타나는 개인의 복잡한 대인관계의 측면을 세부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 대인관계와 사회적 신뢰 관계 분석에 있어서 긴 시간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요소를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으나 결측치가 높은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제외함에 따른 한계도 존재한다.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는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신뢰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의 대인관계가 성인기 사회적 신뢰도를 매개로 다른 개인적 행동이나 또는 사회적 인식 등에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실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동훈. (2015). 종교 활동 참여가 대인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1), 327-343.
- 김동현, & 전희정. (2018).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지위 인식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3-36.
- 김영식, 신철균, & 문찬주. (2018).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직업교육연구*, 37(4), 45-66.
- 김용석, 송진희, & 신희연. (2019).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음주·흡연 경험: 사회관계망 분석의 적용.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3), 171-199.
- 김우철. (2014).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형성:개인자료에 의한 미시적 접근. ,16(1), 191-224.
- 김진구, & 신희영. (2018). 초기 청소년기 또래거부의 사회화 과정: 친구네트워크와 교사-학생 관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63-182.
- 김한솔, 염동문, & 장유미.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매개효과검정. *사회과학연구*, 30(1), 67-85.
- 문상석. (2017).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며: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건설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25, 5-36.
- 박종민, & 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9.
- 송진영.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7), 29-58.
- 염모섭. (2007).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문화와 사회*, 3, 7-45.
- 염혜선, & 이은주. (2018). 중학생의 또래관계 변화신념, 사회적 성취목표, 갈등해결전략, 또래관계 질 및 공격성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32(2), 295-319.
- 정소라, 장석진(2017).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8), 1-25.
- 조춘범. (2017).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52, 5-34.
- 하영희. (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KYCI] *청소년상담연구*, 12(2), 42-52.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 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7-29.
- Larson, J. J., Whitton, S. W., Hauser, S. T., & Allen, J. P. (2007). Being close and being social: Peer ratings of distinct aspects of young adult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2), 136-148.
- Sullivan,H.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 New York: Norton.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Adolescence and Social Trust in Adulthood

Sookweon Min(KRIVET), Se Woong Lee(University of Missouri)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i.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friend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adolesc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llege, and social trust in adulthood. We used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data, collect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KRIVET) that tracks two nationally representative cohor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eniors over a decad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all typ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adolescenc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llege. Whi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llege is shown to be the strongest predictor for social trust in adulthoo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trust in adulthood.

Key words: KEEP,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Trust